

미국의 어느 시골마을에도 봄은 와 만물이 썩트고 생동하고 있건만, 새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다시 생각되는 시절이다. 환경분야 노벨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수상할 사람이 바로 레이첼 카슨이였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한 생물농축의 문제점을 세계 최초로 공론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수은 등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공단이나, 폐광지역 등 일부 오염된 지역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 야채 등 농산물과 어패류 등 수산물 중의 중금속오염이 증대되고 있으며, 화장품 등 산업용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운송 우리 생활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은 등 유해물질의 문제점은 수은 자체의 독성과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생태적인 먹이연쇄과정에 따라 지구적 순환에 의하여 확산되어 먹이연쇄과정의 최정점에 있는 인간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런 의식없이 필요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들 결국 인간 스스로 받게 되는 환경오염의 악순



불자 세상보기

이 병인
부산대 지역환경공학과 교수

생명 위협하는 '생활오염'

환경과 잘못된 과보를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금속오염이 무서운 것은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발생하게 되는 만성중독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문제점을 확인했을 때에는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다시 걱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생활전반에 걸쳐서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노출되어 직간접적 농축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결과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환경과학원, 식약청 등의 발표에 의하면, 주요 생활농산물과 수산물, 화장품과 산업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에 걸친 중금속오염 실태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린이의 경우 혈중의 수은농도가 미국 등 선진국의 10여배이고, 어른의 경우에도 8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은에 의한 오염은 직접적으로는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의한 결과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미 환경 중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환경이 오염된 증거일 수가 있

다. 자연계의 자연적인 변화과정에 의한 수은의 노출은 드물고,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물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서서히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로 결국 생태계 먹이단계의 최정점자인 인간에게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됨을 알 수가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출되는 수은 함량은 아직 미량으로, 그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연계에 노출된 수은은 그대로 농축되어 인간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여 이제부터라도 수은의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입산부나 어린이일 경우에는 수은함유량이 높은 상어와 황새치 등 생선류와 농산물 등을 피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중금속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유해함유량에 대한 기준 제정 및 표시, 유통 과정 및 소비량에 대한 관리 및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다원화된 정부부처들이 서로 잘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불자의 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11일부터 3주간 '범화산림법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이 테마법회를 기획해 장기간 법회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불자들이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오늘날의 불교가 그만큼 활발하다는 얘기가 된다. 법회가 없는 사찰은 대중들이 모일 일도 없다. 수행을 목적으로 산문을 폐쇄하고 정진에만 몰두하는 사찰이 아니라면 모든 사찰이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하화증생'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찰이 법문과 특강 등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회보다는 각종 재일 의식과 불공 등 전통 수행에 근거한 일상법회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불자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바람과는 달리 법회의 형태는 의례적이기 일쑤다. 그래서 사찰에 자주 나가는 불자라 하더라도 법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적은 것이 불교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도심 사찰의 포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입됐던 백괴법회 등이 성공을 거둔 것은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는 좋은 법회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

전국비구니회의 '범화산림법회'

기획법회의 새로운 '위상' 되길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기간 진행되는 큰 법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홍보 그리고 공간적 여건과 시간의 효율성 등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법회에 오르는 스님들의 사자후가 참가자들에게 '큰 공부'로 심어주어야 한다. 최근 불교계에서 자주 보는 대형 기획법회들은 이 같은 조건들을 일정부분 만족시키고 있으며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의 '범화산림법회'는 기존의 대형 기획법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법회를 주관하는 것도 <범화경>을 주제로 릴레이 법식을 이어가는 것도 그 주역이 비구니 스님들이란 점이 가장 돋보인다. 그간은 계율과 관습에 얽매어 비구니 스님들이 큰 법회에 초청되어 사자후를 토하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수행의 현장이나 학계 포교일선 문화계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과 역할은 큰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 이번 법회는 지금까지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계 안팎에서 보여준 활동력을 보다 공고히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이번 법회가 갖는 의미는 전국비구니회의 내적 역량과 결속력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인 점이다. 전국비구니회는 회관 건립 이후 종단의 가사불사를 맡아 진행하고 크고 작은 법회와 학술회의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해 왔다. 이번 법회를 통해 그간의 역량을 총 결집해 회향하는 날까지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조를 유지한다던 전국비구니회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식이 있어도 대중들이 모이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 법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홍보와 치밀한 준비 그리고 내적인 결속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많은 대중들이 이 법회를 통해 <범화경>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종교자유' 칼럼

1. 종교가 뭐길래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어떻게 살고 싶느냐고 물으면 대개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 걸음 나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물으면 백인백답이 십상이다. 어떤 이들은 돈이,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 또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간다.

한편 그것들만으로는 뭔가 허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도 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불교 22.8%, 개신교 18.3%, 가톨릭 10.9%, 기타 1.0%로 총 인구의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주와 생명, 고통의 근원이 궁금하고 두렵기도 해서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삶이 각박해서가 아닐까 싶다.

공국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종교마다 다르게 설명할지는 몰라도 사람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 '자신은 적게 가지되, 이웃과 생명을 돌보라'는 가르침 말이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없는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존경스럽기도 하다. 또 종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보기에도 좋다. 10여 년 전부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교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독교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

드를 내걸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점케 한다. 또 1998년부터 가톨릭 수녀, 불교 비구니스님, 원불교 교우들은 삼소화라는 모임을 만들어 때때로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고, 지난해에는 19일 동안 각 종교 성지를 함께 순례하는 등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드물게는 상대 종교의 성직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평화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도 여러 종교나 전통이

는 증오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어느 학자의 말대로 우리 사회는 종교로 인해 언제든 충돌할 가능성이 큰 '불안한 동거'라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돼서일까. 그것은 종교가 열릴 때는 한없이 너그럽다가도, 닫힐 때는 바늘 끝



여성성직자모임 삼소화가사내에 인도성자순례를 참신하는 모습

도 안 들어갈 만큼 좁기도 한 것이 또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극소수 광신도들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끔 일어나는 사찰 방화와 불상 파괴는

전체 인구의 53% 종교생활... '존중' 깨지면 사회분열

함께 공존 가능하려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념 못지않게 다른 전통이나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실세계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지구상 어디에도 우리나라만큼 여러 종교가 균형 있게 공존·공생하는 곳은 없다고들 하고 종교인구도 증가 추세라는 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가기보다

과연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은 뜸하지만 한때 목이 잘린 단군상도 초등학교생들에게 보이기 거북한 장면이었다. 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공공연히 협박까지 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만난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족 구성원 또는 직장 동료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갈등은

또 얼마나 소모적인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것은 '서구 역사는 400여 회의 종교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종교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개입되어 온 사실만으로도 짐작이 간다. '교만한 독선의 열매는 곳곳에서 타종교인들에 대한 무례와 공격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신안행위로 처벌되는 무식함이 만연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영어에 존댓말이 없으니 예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영어권의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You'라고 말하니 버릇없는 상놈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호주에서 14년 동안 내가 경험한 그들의 예의범절은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철저하고 엄격하다. 다만 그 내용과 방법이 우리들과 다를 뿐이다'라면서 종교 간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호주연교회 목사 울프 블라비 목사의 말이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렇게 열린 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회합에 앞장서지는커녕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종교일 수는 없다.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선택한 종교가 오히려 자신을 가두고 남과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종교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물게 된다. 종교가 뭐길래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할까. 그러나 개인적인 관심적 행위보다

우리를 더 힘겹고 고된스럽게 만드는 것은 체제화·권력화 된 종교계의 독선과 공격성이 아닌 가 싶다. 특히 국민 누구나 공유해야 할 공공영역에서의 종교계의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종교적 차별 및 소외가 우리가 우려할 사안이다. 최근 수 년 간에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선진사회는 결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역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푼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로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언전 10권(慈恩傳10권) 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계 불이 호위하시며 세계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가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평안이나 재물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식구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면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준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면 그나마 하여 놓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몸살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흥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1768-8414~6 팩스768-8413

- ◎ 소재: 팔 개 - 고급 무늬목재
-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 ◎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2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증 및 교육안내

◇ 입증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증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 수 있음.

◇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5)943-6570 / 중부총무원 043)648-8942 / 제주총무원 064)724-0318~9